

이순신 장군 호국정신 기린다... 여수 거북선 축제 개막

세계박람회장서 7일까지... 시민이 수군 분장해 군선과 임진왜란 재현 청소년 '랩' 경연대회·용줄다리기·가요제·맛장터·벼룩시장 등 다채

여수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57회 여수 거북선축제'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축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임진왜란 때 무과 시험장인 '망해각'과 '연무각'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축제 기간은 애초 3일에서 4일로 하루 늘렸다. 행사는 이순신의 호국·애민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체험·공연으로 구성된다. 축제 첫날인 4일 오전 8시 30분에는 충민사, 고소대 등에서 제례를 치른다. 오후 6시에는 이순신 광장에서 주먹밥 만들기,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축제 명장면 중 하나인 '통제영 길놀이'가 중앙쇼펜터 앞에서 출정구호에 맞춰 시작한다. 행렬은 이순신광장과 진남관을 거

쳐 여수경찰서,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이어진다. 통제영 길놀이는 여수에 있던 전라좌수영이 조선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승격돼 전라·충청·경상수군 총사령부로서 해상 제해권을 쥔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유래한다. 수군으로 분장한 시민들이 거북선, 판옥선 등 다양한 군선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를 재현할 예정이다. 축제 개막식은 4일 오후 8시 20분 세계박람회장 엑스포광장에서 열린다. 전통공연 줄타기와 여수 시립국악단 공연, 불꽃 축제, 멀티미디어 전시 등이 이어지고 가수 장민호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 이틀날부터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관람객들은 모바일 게임 '임진왜란'을 즐기고,

전라좌수영 보물찾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삼도수군 청소년 '랩' 경연대회, 전라좌수군이 경연, 용줄다리기, 소년 이순신 장군 선발대회, 여수거북선가요제, 여수맛장터, 여수 벼룩시장 등이 펼쳐진다. 여수시는 축제장 인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임시·공영주차장 17곳 13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모범경찰운전자협회, 자원봉사자 등 약 400여 명이 축제 안전 유지 인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5월 가정의 달에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으로 준비했다"며 "새로운 장소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기시고 '남해안 거점 도시 여수'에서 좋은 추억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거북선축제에서 임진왜란 때 '통제영 길놀이'를 재현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고흥 대표 특산품·관광자원 '8품 9미 10경' 선정



고흥군이 관광객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8품 9미 10경'을 선정해 홍보에 나선다. '10경' 중 하나로 선정된 옥섬 전경. <고흥군 제공>

유자·서대회무침·편백치유의 숲 등...1000만 관광시대 발판

고흥군이 '고흥 관광 1000만명 시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고흥 8품 9미 10경'을 재정비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고흥 8품 9미 10경 재정비 용역'을 실시해 관광객과 지역민의 인지도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 자체 보고회와 직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고흥 8품 9미 10경'을 선정했다. 8품(品)에는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유자, 석류, 김, 미역, 다시마, 굴, 마늘, 유자칼판 우가 선정됐다. 9미(味)에는 쉽게 맛볼 수 있고 고흥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인 장어탕/구이, 서대회무침/조림, 유자술, 매생이국, 삼치회/구이, 전어회/구이, 모듬 생선 솥불구이, 바지락 회무침/깃경, 한우구이를 선정했다. 10경(景)에는 지역민과 외지 관광객, 용역 참여 연구진의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팔영산 자연휴양림과 편백치유의 숲, 역사의 섬 소록도, 사계절 꽃피는 옥섬, 예술의 섬 연흥도, 금산 해안경관과 거금생대숲, 천등산 봉수대, 나로우주센터와 편백숲, 남열 해안경관과 해수욕장,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 분청문화박물관과 운암산 녹음길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흥 8품 9미 10경'을 널리 알리고 8품 판매 전략과 9미 '맛집' 지정 운영 등 '8품 9미 10경'을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맛집기행과 치유 중심의 여행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면서 "고흥의 맛과 멋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군민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산단 방폭·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3년간 255억 투입 석유화학플랜트 시험·인증·교육 시설

국내 최대 화학산단인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255억원 규모의 '석유화학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가 구축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남여수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정돼 국비 165억원을 확보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여수산단 내 미래혁신지구에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55억원을 투입, 석유화학플랜트 방폭 및 화재안전 관련 시험·인증·교육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혁신지구 내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전남대 공저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해 ▲KCs(안전인증) 인증기관 및 국내외 방폭 인증 컨설팅 지원 ▲방폭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폭발·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국가산단에 방폭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장애인 휠체어 안심주행 지원

취약계층 대상 전용보조가방 제공...17일까지 신청 접수

광양시가 2차 '휠체어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2주간이며,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혹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6월 초 대상자를 확정 후 1인당 20만원 상당의 휠체어 전용보조가방을 구입해 대상자에

게 6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20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하태우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이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오늘부터 '친환경 수소버스' 운행

올해 8대까지 확대

여수시가 4일부터 전남도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를 운행한다. 수소버스는 차내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저상버스로 제작돼 교통약자의 편리한 탑승도 가능하다. 승차정원은 48인승으로, 휠체어 전용공간 2석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수소버스 1대의 시범운행을 거쳐 현재 구축 중인 주상동 삼동지구 내 특수상용수소충전소 준공에 맞춰 올해 8대까지 수소버스를 늘릴 예정이다. 전기버스 운행도 추진해 친환경버스도 입사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친환경 수소버스 운행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정원박람회 전기 여객선 '정원드림호' 첫 출항

순천역-국가정원 내 나루터 왕복 사전예약제로 하루 8회 운항

국내 최초 순수 전기 여객선인 '정원드림호'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도심에 있는 국가정원벚길로 처음 출항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정원박람회장에서 전기 여객선 '정원드림호' (22인승) 출항 기념행사를 열었다. 정원드림호는 순천역 인근 동천테라스에서 국가정원 안 호수정원 나루터를 잇는 국가정원벚길을 누닌다. 선원 포함 12인승과 순수 전기 여객선인 22인승이 운항한다. 22인승 정원드림호는 호수정원 나루터를 출발해 꿈의 다리, 물 위의 정원, 동천변 꽃밭, 동천테라스를 둘러보는 왕복 5km 구간을 운항한다. 매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8차례 운항한다. 12인승 정원드림호는 지난날 말까지 주말 기준 90% 이상 탑승률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여성 예매자가 66.4%에 달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36.6%), 30대(22.5%), 50대(22.3%), 20대(7.7%) 순으로 많았다. 정원드림호는 사전예약제(인터파크)로 운영되고 있으며, 탑승료는 성인 왕복 1만2000원, 편도 8000원 등이다.



국내 첫 순수 전기 여객선인 '정원드림호'가 지난 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를 출발하며 운항을 시작했다. <순천시 제공>

22인승 전기 여객선이 도입되면서 하루 운항 횟수는 기존 48회(최대 480명 탑승)에서 64회(720명)로 늘었다. 박람회조직위는 지난해 10월 친환경 전기 여객선 설계를 시작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 안전 검사를 마쳤다. 선박 등록과 유선사업 면허를 취득하며 지난 1일 운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기 여객선은 길이 14.84m, 폭 3.5m, 14t 규모로 제작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선체는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이 덜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재활용을 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꼽히고 있다. 전기 여객선 제작에는 목포해양대학교와 ㈜빈센, ㈜마테 등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했다. 이날 출항식에는 노관규 조직위 이사장(순천시)과, 나안수 시의회 부의장, 원희철 목포해양대 총장, 이철환 ㈜빈센 대표이사, 염철호 ㈜마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일림산에서 '철쭉 향연' 즐겨요

내일부터 3일간 철쭉문화행사...음악회·로컬푸드 등

'제19회 보성 일림산 철쭉 문화 행사'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용추계곡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일림산은 전남 보성군 용치면 용반리에 자리하고, 높이 667.5m의 높이로 호남정맥이 제암산과 사자산을 거쳐 남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솟은 산이다. 산의 8부 능선에 형성된 150ha 규모의 철쭉을

지향하는 전국 최대 철쭉 근각지다. 보성군은 군의 발전과 군민화합·번영을 기원하는 제례를 시작으로 숲속 음악회, 산림 문화 사진 전시회, 로컬푸드 판매코너, 편백나무 잘라가기 등 문화행사-체험행사 2개 분야 7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